

법난 상이자 치료비 등 1400만원 10·27법난심의회, 의료지원금 첫 심의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 조계종 총무부장)는 구랍 2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위원회 발족이래 처음으로 의료지원금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

제8차 회의는 10·27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에게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 및 보조 장구 구입비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동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건수는 총 41건(신청자 30명)이다.

명예회복심의회는 이번 의료지원

금 심의 의결 후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 및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10·27법난특별법은 1980년 10월 말에 발생한 10·27법난과 당시 피해자들과 불교계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도록 제정된 법. 이에따라 2009년 2월 19일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다.

박선주 기자

조계종, 최우수 종무사업 포상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구랍 24일 2009년 최우수 종무사업에 ‘국립공원 해제 및 문화유산지역보존 추진 활동’을 선정하고 실무팀을 포상하기로 했다. 이번 우수사업 선정은 각 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보다 활발한 사업추진을 이끌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조계종은 ‘국립공원 해제 및 문화유산지역보존 추진 활동’의 최우수 사업 선정 이유로 환경부의 일방적 자연공원법 개악을 저지하고 종단과 협의토록 이끌어 냈으며, 7·2전국본말사

주지결의대회를 원만 성취한 점을 들었다. 또한 사회 각계에 국립공원 제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릴 공과를 형성했다는 자평도 내렸다.

이 밖에 우수사업에는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불교소양강화 △불교음악 육성 기반 마련 △저소득 실직자정부를 위한 자비나눔 △불교입문 강사 양성과정 △어린이청소년포교 전진대회 △사찰음식체험사업 및 사찰음식집(바우) 운영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승가학원 이사장에 자승 스님 선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에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선출됐다.

승가학원은 구랍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6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자승 스님을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중앙승가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잘 이끌어 오셨다”며 “중앙승가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인사 단행

조계종 인사위원회(위원장 자승)는 구랍 24일 일반직 종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차장 인사로는 총무차장에 박용규 재무회계팀장, 기획차장에 김영일 포교차장, 교육차장에 이석실 총무차장, 포교차장에 황철기 신도팀장, 사서차장에 박희승 기획차장을 임명했다.

팀장 인사로는 총무팀장에 김한일 기획팀 행정관, 재무회계팀장에 전형근 교육차장, 국제팀장에 홍민석 국제팀 행정관, 신도팀장에 김병주 전통불교문화원 행정관, 중앙박물관 사무팀장에 이분희 문화팀 행정관을 발령했다.

이번 인사발령은 1월 4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명문사학 위상 찾도록 최선”

제25대 동국대 총동창회 이연택 회장... 기금 25억원으로 늘리는 등 성과



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정부와 체육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불교와 인연도 깊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청와대 행정수석 등을 맡으면서 “전통사찰보존법” 제정과 중앙승가대의 정구대학 승격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체육회장 시절에는 태릉선수촌에,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는 올림픽회관에 법당을 열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최근 일간

지의 대학순위평가에서 동국대가 중위권에 머문 것은 큰 충격”이라며 “총동문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동국대의 위상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 이 총동창회장이 집중하는 분야는 인재불사이다. 총동문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 총동창회장은 “명문사학으로 자리 굳히려 고려대 총동창회는 연간 500명에게 2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동국대 총동창회가 현재 연간 40명에게 4000만원 규모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고려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2010년에는 장학생수를 1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이 총동창회장은 “대학평가에서 동국대 교수의 연구업적이 저

조한 것도 순위를 낮춘 한 원인”이라며 “2010년부터 1차로 20명의 교수에게 1인당 300만원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과 교수 지원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이 총동창회장은 취임 후 총동창회 조직 정비부터 나섰다. 출신고·지역별·학과별로 흩어져 있던 동창회를 엮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총동창회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개별 동창회에서 상납되던 돈의 흐름을 양방향으로 바꿨다. 총동창회에서 개별 동창회에 장학금을 지원해 개별동창회 이름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자, 총동창회에서 지급된 장학금이 자급 받은 개별 동창회 구성원들이 받 벗고 나서 기금을 보냈다.

이 총동창회장은 “불과 3개월 만에 총동창회 기금이 7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보고 동국인의 자력을 새삼 경험했다”며 “총동창회를 장학재단으로 발전시켜 제

도적으로 투명한 운영을 공고히 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동국대는 1700여 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민족사학으로서 동국대의 발전이 불교 중흥이며, 민족정신의 부흥”이라며 “동국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제2의 건학’이란 과제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구성원 모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 총동창회는 구랍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09동국인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009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송석규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사회교육부문)과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체육부문), 김현수 대한한인사회회 회장(의료부문)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은해사 장학금 2000만원 기탁

12월 21일 동대 경주캠퍼스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구랍 21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로부터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 받았다.

영천 은해사가 동국대에 전달한 금액은 ‘동국대 장학회’ 기금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불자단체 육성을 위해 사용된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은사인 동국 일타 대종사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불교인재 육성에 각별했던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동국대 장학회를 설립했다”며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지름길은 바로 능력 있는 불교인재를 많이 키워 내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불교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손동진 총장은 “불자엘리트 양성

혜충 스님 상금 전액 장학금으로

진흥원, 제7회 대원상 시상식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구랍 23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대원당에서 제7회 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대원상 승가부문에 대상에 선정된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스님을 시상 후 혜충 스님은 자신이 부상으로 받은 상금 1000만원을 불자 대학생 육성에 써달라며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인 명호근 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대원 상은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대원 장경호 거사(동국제강 창업주)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불법 흥포와 진흥에 귀감이 되는 불자들을 지원하는 데 취지가 있다.

조동섭 기자

“미디어랩법 제·개정 공익성 담보돼야”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랩 관련법의 제·개정이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불교(불교방송) 개신교(CBS) 카톨릭(명화방송) 원불교(원음방송) 등이 참여한 종교방송협의회는 구랍 22일 미리 공개한 성명서에서, “미디어랩법 도입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방송협의회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미디어랩법이 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국회의원이 상정된 법안 중 특정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 방송의 공공성을 저버린 법안이 있어 실망스럽다. 미디어랩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종교방송사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종교방송의 노력에 반하는 정치세력은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조동섭 기자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崔慧草
宗正禮敬室長 趙常虛

- | | | | |
|-----------|------------|----------|-----------------|
| 僧正院院長 柳南坡 | 元老會議議長 金一宇 | 總務院長 朴印空 | 宗務調整室長 金清光 |
| 副院長 李寶峰 | 副議長 權德化 | 副院長 姜青峰 | 教務企劃室長兼總務部長 朴圓明 |
| 副院長 金法藏 | 副議長 姜慧宗 | 副院長 閔法顯 | 交流協力室長 金能解 |
| | | 副院長 李華鏡 | 財政支援室長 車月潭 |
| | | | 文化宗務特補 金法顯 |

- 教務部長 朴智海 財務部長 朴法京 企劃部長 金法雲 社會部長 曹古潭 文化部長 沈智虛 糾正部長 安九山 教任部長 金道法
宗務委員 李無爲 宗務委員 尹祥河 宗務委員 趙完月 司書室 金清空

- 中央宗會議長 成圓峰 中央司正院長 朴芸谷 中央初審院長 金慶潭 中央選舉管理委員長 金月雲 中央教育院長 文普經 中央布教院長 片白雲
副議長 尹靈祐 副院長 馬一雲 副院長 高香海
副議長 趙常虛